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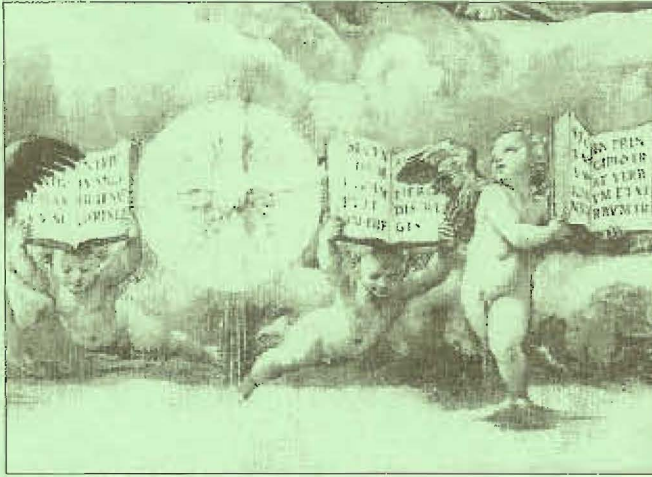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2주일
제31권 40호(가해) 2011.8.28

[묵상]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할 일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밝히십니다.
십자가의 길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
결코 그럴 수는 없다고 반박하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호되게 꾸짖으시는 예수님,
십자가가 없는 영광만을 바라는 것은
하느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고통을 피하고 안락과 평안만을
추구하는 세속 사람의 생각으로는
고통과 불의를 내버려두시는 하느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느님은 고통을 없애려 오신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이
참된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따르는 일은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는 일이며
하느님의 사랑에 동참함으로써
무엇보다 귀중한 제 목숨을 얻는 것입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오후 2:00
	예비자 교리반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전신자 성경통독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빈첸시오회 ● 울뜨레아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권순봉 요안나, 엄은섭 도로테오
특전미사	(생) 엄효정 모니카
주 일 낮 미사	(연) 조경림 요셉, 오진 베드로, 이덕철 루가, 고준희 제임스, 김봉두, 엄익찬 안토니오, 박진성 & 박부원, 김인영 베드로, 김인주 미카엘 & 이달자 마리아, 전길례 모니카, 김차옥 요셉, 이진오 스테파노 & 유춘자 미카엘라
	(생) 오명섭 미카엘, 신대철 알베르토, 박진숙 엘리사벳, 김상규 니콜라오 & 김성민 카타리나 가정, 이강웅 요셉, 전시웅 요한, 김종렬 베드로, 조혜운 테레사, 최태훈 아오스딩, 최양숙 안젤라, 제33차 남가주 남성꾸르실료 수료자 & 봉사자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예레미아서(Jeremiah) 20,7-9

화답송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주 - 님, 저의하느님, 제영혼 당신을 목말라 - 하나이 - 다.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베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쁨진 음식으로 배불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이다.○

제 2독서 로마서(Romans) 12,1-2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복 음 마태오(Matthew) 16,21-27

영성체송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363	231	231
봉헌	264	191	264
성체	주품에 품으소서	286	284
파견	235	192	192

4. 너희가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인간 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

▶마리아와 교회의 모성에

묵시록은 그 "태양을 입은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12,2)고 말해 준다. 교회는 자신 안에 세상의 구세주이신 주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다. 교회는 남녀들을 하느님의 새생명 안에 새롭게 태어나도록 함으로써 세상에 그리스도를 제공하도록 부름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사명이 마리아의 모성에 때문에 가능해졌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참된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된 하느님"을 잉태하고 낳으신 분이시다. 마리아께서는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모친(Theotokos)이시다. 하느님께서 모든 여성에게 주신 모성의 소명은 그분의 모성에 안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다다르게 된다. 그러므로 마리아께서는 교회의 전형이시며, "새로운 하와", 믿는 이들의 어머니, "인류"의 어머니(창세 3,20 참조)라고 불린다.

교회의 영적인 모성에는 오직 해산의 고통과 "진통"(묵시 12,2 참조), 다시 말해서 여전히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그리스도에게 저항하는 악의 세력과의 끊임없는 긴장을 통해서 성취되며, 교회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요한 1,4-5).

교회와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고통 속에서 모성애를 실천해야만 했다. "이 아기는.....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루가 2,34-35). 구세주께서 지상생활을 시작하실 바로 그때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하는 이 말은 예수에 대한 거부를 요약하여 예시하며, 갈바리아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 이 거부는 예수와 더불어 마리아에 대한 거부이기도 한다. "십자가 밑에 서계신" (요한 19,25 참조) 마리아는 당신 아드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헌신에 참여하신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봉헌하시고, 그분을 내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낳아주신다. 예수님의 잉태를 예고받은 그날의 "예"라는 대답은 십자가의 날에 그 충만한 완성에 다다른다. 그날은 마리아께서 제자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여 당신의 자녀로 낳아주시며, 그들 위에 당신 아드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때이다. "예수께서는 당신 어머니와 그 곁에 서있는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먼저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요한 19,26) (◆계속)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

“여러분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몇 년 전 사제피정에서 지도신부님께서 그날 묵상할 주제를 주셨습니다. 자연스레 대신학교 입학때가 떠올랐습니다. 사제가 될 결심을 했으니 당연히 결혼과 가정생활을 포기해야 했지요. 어린 시절 막연히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주신 영향때문이었습니니다. 학장 신부님께 외출 허락을 받아 아버지의 병실을 찾았을 때 하신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네가 신학교 가는 것을 반대한 것은 사제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또 한가지, 내가 6·25 전쟁 때문에 이루지 못한 꿈을 네가 이루어주었으면 했지.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 말이다. 신부님은 신자들이 하느님을 알도록 가르치는 분이니 괜찮다. 부디 착한 사제가 되어야 한다.”

그제서야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유독 내게 열성을 쏟으셨던 아버지의 속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어머니교실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실 정도였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는 병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느님 나라로 가셨으니 ‘착한 사제가 되라’는 말씀은 결국 아버지의 유언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로 나와 아버지의 꿈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꿈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며, 적극적인 삶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어떤 것 하나를 선택하려면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인가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인들이 삶 속에서 나침반으로 삼아야 할 지침도 덧붙이십니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마태 16,25). 자신을 버리는 것은 인간의 눈에는 당장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결국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한 자체가 이미 십자가를 각오한 셈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느님이나, 혹은 세속이나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사실 마지막 선택은 항상 하느님의 길 또는 나 자신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있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가치있고 참다운 행복의 삶이 되려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 의지하고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그 길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이미 증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용기와 결단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버리셨나요?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임정빈 보스코	남성철 베네딕도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갈유현 미카엘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영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김은지 릴리안	이희경 크리스티나	이순자 비비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임정빈 보스코	엄영숙 마리아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갈유현 미카엘	김교복 레오	송현식 바오로
제2독서자	김정아 아나스타시아	서용숙 에스텔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천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9월 순교자 성월

◆성시간 : 1일(목) 저녁미사중에, 진행: 하버/카슨구역

◆병자 영성체 : 2일(금) 오전 10시부터

◆성모신심 미사 : 3일(토) 오전 8시30분

◆추석 합동 위령미사 : 12일(월) 오전 8시30분,
오후 7시30분 두대 봉헌, 미사에물은 사무실에서 접수

◆ 백삼위 신심단체 '1인1단체 가입' 캠페인 : 단체소개
본당 각 신심단체 활성화 및 회원가입 확대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일미사 후 '우리 단체에 오세요!' 소개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양업회, 요셉회, 대건회에 이어 이번 주일은 성모회 차례입니다. 앞으로 남은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9월4일 : 자모회 ▶11일 : 안나회 ▶25일 : 빈첸시오
▶10월2일 : 레지오 마리아 ▶10월9일 : 배론청년회

◆ '야의 십자가의 길' 공사 진행중입니다.
본당설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조성되는 야의 십자가의 길 14처(the Way of the Cross=14 Stations of the Cross) 봉헌이 단체, 개인별로 모두 끝나고 8월15일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치는 성모님 동산앞 잔디밭에 건립됩니다. 이제 14처 동판 안치와 조경작업이 남은 이 공사는 오는 9월18일(주일) 본당의 날에 맞춰 완공될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 중 주차장 사용과 조형물 주변 잔디 왕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남가주 제33차 남성 푸르실료 참가자 환영 울뜨레아
● 일시 : 오늘 주일(28일) 오후 7시 강당
● 수강자 : 이남현 막시모, 이인석 비오, 김관기 라파엘, 이영석 크리스토퍼 * 봉사자 : 서성용 베드로, 김성현 유스티노
● 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문의 : 간사 이명순 크리스티나 ☎(310)749-0276

◆ 목주기도 30만단 봉헌 목표달성... 총 304,383단
본당설립 30주년을 맞아 금년 1월부터 시작한 신자들의 목주기도 30만단 받치기가 8월18일 현재 총 30만4천3백83단을 기록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구역별 기도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런스 동구역 : 43,488단 ● 토런스 서구역 : 60,473단
● 토런스 남구역 : 18,864단 ● 토런스 북구역 : 26,259단
● 하버/카슨 구역 63,494단 ● P.V.구역 : 71,886단
● 기타 : 19,919단 ▶총 304,383단

* 앞으로 목주기도 30만단 이어가기 행사는 계속됩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목주기도 봉헌표를 체대앞에 마련된 봉헌함에 넣어 주십시오.

◆ 제2기 서예 회원모집

● 연습장소 및 시간 : 매주일 오후 1시15분, 2층 유아실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본당설립 30주년 기념 종합예술대전 작품신청 연장

● 작품신청마감 연장 : 9월4일(주일)까지, 신청비 없음.

◆ 제 68차 남가주 한인 ME 첫주말에 본당 4쌍 참가

● 날짜 : 9월2일(금)~4일(주일), 마리아 요셉 피정센터(PV)
● 참가부부 : 김병록 요셉 ♥ 김지희 체칠리아
김도형 에우제니오 ♥ 조현주 루시아
정치영 프란치스코 ♥ 정종미 클라라
유석영 레오 ♥ 신혜정 로사

● 은혜로운 첫주말이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문의 : 본당 대표부부 정동호 하삼바로 & 병옥 율리아 ☎(310)780-9055

◆ 재물봉헌 : 제병과 포도주만 봉헌합니다.

9월부터 주일 낮11시미사에 촛불봉헌은 없습니다.
- 전례분과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8월28일 : 故 조경림 요셉 유가족(장례미사 감사 떡나눔)
● 9월4일(주일) : 레이버데이 연휴로 친교자리 없습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태홍	김성현	김양금	김옥찬	김정순	김택수	성전헌금	강태홍	김양금	김정순	김택수	나경흠	남명자
	나경흠	남명자	노천수	민경근	박광자	박선희		노천수	민경근	박광자	박선희	박완철	신순철
	박완철	송영미	송준규	신순철	안재만	안태갑		안재만	안태갑	이일길	정훈모	차병용	최원석
	오명섭	육근주	이석진	이연행	이영석	정훈모		최현찬	한혁수	홍석인			
	차병용	최수현	최원석	최현찬	한혁수	홍석인							
	합계 : \$3,285							합계 : \$2,495					
미사헌금 : \$2,530							감사헌금 : 윤경옥	김상규	송호창	민원희			

공지사항

◆ 주일학교 전례모임

- 일시 : 오늘 주일(28일) 오후 1시 성당
- 대상 : 해설자, 독서자
- 문의 : 이진원 루시아 초등부 교무주임 ☎(310)780-8895
- 전례연습이 있으니 해당학생들은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 주일학교 새학기 2차등록 접수합니다.

- 등록비 : 첫째 \$120, 둘째 \$80, 셋째 \$60, 넷째 수업료 없음
- 2차접수 : 9월11일(주일)까지
- 자모회비 : 한가정당 \$40
- 문의 : 주일학교 교장 이인석 비오 ☎(213)258-8665

◆ 백삼위 한국학교 새학기 등록 접수중

- 등록일자 : 9월11일(주일)까지
- 등록금 : 첫째 \$160, 둘째 \$150, 셋째 \$140, 넷째 무료
- 수업시작 : 9월11일(주일) 낮 12시~오후 3시
- 대상 : K~12, SAT II
- 문의 : 김본경 올리아 한국학교장 ☎(310)713-2669

남가주 소식

◆ 연극 '바보 추기경' 공연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사랑과 나눔의 삶을 표현한 연극 '바보 추기경'이 FIAT재단 주최로 LA와 OC에서 두차례 공연을 갖습니다. 한국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연극 '바보 추기경'은 평범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바보'가 될 수 있다는 증거이자 '바보로서의 삶'을 초대하는 초대장이 될 것입니다.

- OC 공연 : 9월10일(토) 오후 4시30분, 성 토마스 성당 412 N. Crescent Way 에나하임(714)702-9830
- LA 공연 : 9월11일(주일) 오후 4시, 성 프란치스코 성당 2040 Artesia Bl. 토런스 (310)324-8159
- 티켓 : 예매시 \$30, 당일\$40

◆ "말씀의 초막절" 축제에 초대합니다.

- 일시 : 9월11일(주일)~18일(주일)
- 개회미사 : 11일 오후 4시, 주례사제 배기현 신부
- 폐막미사 : 18일 오후 4시
- 장소 : 미주 성서모임 센터(부에나파크, ☎714-521-1345)

◆ 제15회 남가주 한인 가톨릭 미술가회 정기 전시회

- 일시 : 9월17일(토)~30일(금), 리셉션 : 17일 오후4시
- 주제 : "너희는 내 사랑안에 머물러라"
- 장소 : Lee & Lee 갤러리(3130 Wilshire Bl. #502 LA)
- ☎(213)365-8285

◆ 성 골롬반 청소년 선교회원 모집

- 대상 : 9~10학년 재학중인 고등학생
- 오리엔테이션 : 9월18일(주일) 오후 4시 LA 성 아그네스 성당 한인회관, * 지도 : 최용훈 신부
- 문의 (323)734-4946

소공동체 9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박해경 레나타 (310)808-5005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해경 올리아나 920-5153	이순자 비비안나 834-8856 9/2(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박선화 안나 9/10(토) 오후 7시, 성당장당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레스 989-0366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0369 9/9(금)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김영태 요한 619-7763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박명순 안나 720-2876 9/16(금) 오전 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최경숙 수산나 320-0855 9/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김경수 헬레나 634-6923 9/8(목) 오전 11시 성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송미카엘 540-9032 9/10(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권오상 바오로 257-8416 9/9(금)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박진수 스테파노 710-8078 9/10(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티다 384-3289	정은주 세실리아 377-6328 9/9(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배재일 미카엘 544-9460 9/9(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9/9(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이귀란 아네스 617-3568 9/13(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	휴회
-----	----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휴회
-----------	----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삶의 비결

가끔 소문난 맛집을 찾을 때가 있다. 비슷한 음식인데도 자신만의 비법으로 독특하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래서 다른 집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을 모으는 집이다. 그런데 그 비결은 누구도 모르고 그 사람만이 간직한 소중한 비법이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머느리도 몰라!”라는 방송 광고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비법이 없을까. 그래서 나만이 그 비법을 알게 되면 이렇게 어려운 신앙생활 없이 쉽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사실 이런 아무도 모르는 남다른 비법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지닌 공통된 생각인 듯하다. 예수님 당시에 도 에세네파를 비롯하여 많은 신앙 공동체들이 있었다.

이들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원칙과 신앙, 생활 규칙을 강조했으며 그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지주의자들 역시 신앙의 비밀스러운 지식과, 이를 실행하는 비법을 전수하기도 했다.

우리 신앙의 비밀스러운 원리나 지식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그래서 그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게 되면 손쉽게 구원을 얻게 되고,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록을 보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한 유명한 랍비인 힐렐에게 한 이교도 젊은이가 다가와서 자신이 한 다리로 서 있는 동안 토라 전체를 가르쳐주면 유대교로 개종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러자 이 유명한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네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토라의 전부이고 나머지는 다만 그에 대한 해석일 뿐이다.” 그러니 그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토라의 비밀이라고 말했단다.

죽음을 앞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한다(신명 30,11-14).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느님의 법을 내려다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할 수 있을텐데”라고 말하지 말라. 하느님의 법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데 있다. 그 법은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어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바로 우리 옆에 그렇게도 어려운 신앙의 비밀이 놓여 있다.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에 대해 예수님은 한 마디로 요약하신다. “남에게서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어라.”(마태 7,12). 그렇게도 힘들게 찾아 헤매던 신앙의 비밀스러운 원리, 하느님에 대한 최고

의 지식이 여기에 있다.

그 비밀을 묻는 율법전문가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강조하셨다. “너희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그와 똑같이 너희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루카 10,27). 그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복음의 비법인 것이다. 혹시 우리는 신앙의 비법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해 저 멀리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신승환 스테파노 / 가톨릭대학교 철학 교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 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목헌장> 1항 -

이전 알아두세요.

천정은 불교입니다. 아버지의 49재를 절에서 올리는 천정식 구들을 따라 불경을 외우고 절도 하고 불전과 영전에 돈도 올렸습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어떻게 하는게 옳은지, 또 딸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매님의 고민이 헤아려집니다. 그럼에도 “신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절도 하고 돈도 올리고 영전에도 돈을 올렸다”는 말씀을 전폭적으로 이해하기가 거북합니다. 우선 그렇게 행동하신 후에 자매님의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답이라 생각됩니다. 그 행위들이 결코 그분을 기쁘게 하지 못했으며 그분께 떳떳하지 않다는 자책에 ‘영혼이 찢린’ 양심의 증거이니까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주제는 ‘상대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타 종교인을 배척하고 그들의 행위를 무시하거나 질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좋고 더 크신 하느님 사랑을 전하여 느끼게 해 주는 복음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대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겉으로만 보여주려는 행동, ‘거짓 평화’를 위장하여 단지 그들과 ‘하나인 척’하고 ‘같은 척’하는 모습은 결코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이르신 사랑의 자세가 아닙니다.

◆도움말 : 장재봉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